

한라시론



성주엽  
생각하는 정원

정원의 전쟁과 평화

아침 해가 떠오르며 정원의 아침은 시작됩니다. 목장갑을 손에 끼고 낙엽담은 손수레에 청소도구를 싣고 나를 반기는 새들의 합창소리를 들으며 정원에 들어섭니다. 정원은 아침정소의 정성과 노력에 따라 많은 차이가 납니다. 아침정소가 잘된 정원은 시야가 넓고 길어집니다. 잘 정돈된 정원은 선들이 면을 만들고 시선을 이어주면서 어느덧 훌륭한 미술관에서 명화를 감상하는 것과 같은 분위기를 느끼게 됩니다. 아침정소가 제대로 되었을 때 방문객들은 평화로움속에

영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침정소를 통해 깨달음과 사색의 시간을 갖게됩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자연의 진리를 발견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날마다 깨끗하고 고요한 정원의 아름다움으로 세상 사람들의 영혼을 깨우고자 하는 정원이기에 깨끗한 아침정소는 반드시 지켜야 할 책임이며 소명이 되었습니다. 아침정소를 할 때 모두가 기쁘고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아침정소는 나의 본분이 되었습니다. 이른 아침 정원 곳곳을 깨끗이 청소하고 나면 온 몸이 맑아져 줍니다. 흘러내리는 땀을 닦으며 바쁘게 뛰는 심장 소리를 들으며 청소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아침정소를 마치고 깨끗해진 정원을 바라보면 내 마음이 먼저 웃으며 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아침정소를 통해 정원은 매일매일 새로 태어남을 알기에 아침을 깨울 수 있구나 봅니다.

여름에는 다른 계절보다 큰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잔디깎기입니다. 여러 잔디깎기와 오형형상의 동산으로 이루어진 생각하는 정원은 높은 각도의 경사진 곳에서 빠르게 자라나는 잔디를 깎느라 애를 먹습니다. 새소리 물소리 들리는 조용하고 품격있는 정원의 아침을 위해 여름 정원은 더 이른 새벽부터 잔디를 깎는 소란함과 부산함으로 전쟁터를 방불케 합니다. 잔디깎는 예초기 소리와 깎은 잔디를 모으는 ब्ल로워 소리가 정원의 정적을 깨고 전쟁터로 변하게 됩니다. 아침 9시가 되기 전까지 모든 정리정돈을 마치고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고요한 사색의 정원으로 변하게 됩니다.

관람객들은 아마 정원사들의 아침 정원을 알지 못할 겁니다. 정문을 들어설 때 곳곳으로 들어오는 싱그러운 풀내음과 여름 아침의 상쾌함, 시원하게 펼쳐진 잔디밭과 햇볕 아래 건 강하게 자라는 나무들, 비단잉어와 철갑상어가 노니는 맑은 연못과 시원한 폭포... 이 아름다움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원이 주는 마음속 평화와 영감의 세계에서 스스로의 영혼을 깨울 수 있는 곳이 됩니다. 평화는 결코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듭니다. 몸으로 전해지는 불편한 진동을 참으며 이마와 가슴으로 쏟아내는 땀방울의 수고와 노력이 있기에 다른 한 편에서 기쁨과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혜택은 앞선 세대의 전쟁과도 같은 상황 속에 흘린 피와 땀으로 얻어진 행복이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진정한 평화는 자기 자신과 경쟁하는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열매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행복과 기쁨이 아닐까 생각해보게 됩니다.

사설

내년 예산 경제 활성화에 우선순위 뒤야

제주자치도가 가을 길목에 들어 서자마자 내년도 예산안 편성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매년 뒤돌아 되는 일이지만 올해는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세수가 줄어 예산안 편성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최근 5년간 평균 세입 증가율은 7.8%에 불과한데 세출 증가율은 9.1%로 적자예산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제주자치도는 어느 때보다 정확한 세입 추계안을 반영하고 세출예산은 필수 현안사업 위주로 우선 순위를 뒤 철회하여 심사에 반영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특히 신규사업은 재원 확보안까지 마련하도록 하는 페이그(Paygo) 원칙을 적극 적용하고 올해 집행이 부진한 사업은 편성에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따라오는 얘기지만 경상경비 절감과 유사사업이나 중복사업 등도 자제할 방침입니다. 대규모 시설물 신축과 지원사업도 중앙부처의 국비 지원 공모에 선

정원 사업에 한해 허용해줄 계획입니다. 문제는 지역경제도 어느 때보다 어렵다는 점입니다. 건설분야와 농축수산 분야는 올해들어 지속적으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본과 수출 분장으로 잘 나가던 관광분야까지 침체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를 방치할 경우 내년 세수 악화로 다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자금 사정이 악화되고 있는 건설업과 음식·숙박업, 그리고 1차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확장적 재정 운용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정부와 여당도 내년도 예산을 확장적 재정운용 기조로 편성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다. 제주자치도도 도시사의 공약 사업은 후순위로 밀어놓고 지역경제 활성화 의지가 확실하게 반영될 수 있는 예산안을 편성, 어려운 지역경기 부양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시행 앞서 미비점 보완을

내년 10월부터 도내 대형 사업장에 대상으로 도입될 교통유발부담금제는 제주도정의 핵심 교통주차정책의 하나입니다. 교통수요의 간접적 억제에 도모하기 위한 목적에서 2000년부터 제도 도입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제주도의 교통주차난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제도 도입은 더 이상 늦출 수 없음을 분명합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에 기업들도 축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대형 건축물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 산정 등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교통 혼잡에 대한 원인자 부담 원칙에 입각해 교통유발부담금 산정을 위한 전수 조사 결과 제주시 1923동, 서귀포시 899동이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담금은 총 105억 원으로 잡정 파악했습니다. 이에 대해 관광업계를 중심으로 교통유발부담금 산정 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반발이 일고 있습

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에 적용되는 교통유발계수가 2015년 연구결과를 토대로 가장 혼잡한 노형오거리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적용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통혼잡이 심한 도심지역과 외곽지역을 분류하지 않고 부담금 산정기준을 동등하게 설정한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몇 년 전의 조사 수치로 교통유발계수를 적용한 것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도심과 외곽지역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좀 더 세밀한 기준 마련과 적용이 필요합니다. 제주도는 주차난을 덜기 위한 차고지증명제 도입과 관련 준비가 안된 탓에 혼란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제도 시행에만 급급한 나머지 예상되는 문제점들에 치밀히 대처하지 못한 탓이 큽니다.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교통유발부담금제 시행에 앞서 문제가 있다는 반발이 일고 있습

편집국 25시

불완전한 약속



이상민  
경제산업부 기자  
hasm@ihalla.com

시설로 2021년 10월까지 옮기겠다고 약속했다. 협약 당시 색달동 음식물처리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지만 주민들은 다시한 번 행정을 믿고 싹터를 내었다. 행정 국비 지원이 안되거나 행정 절차 중 하나라도 지연되면 협약이 깨질 위험성은 다분했지만 당국은 무턱대고 약속 기한을 못박았다. 기한 내 약속을 못지키면 도대체 어떻게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지 대안도 마련해 두지 않았다. 애초부터 '불완전한 약속'을 내세운 건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 사업 적정성 검토가 지연되고, 국비 지원은 지난달에야 결정되는 등 협약이 깨질 위험 신호는 진작 흘러 나왔다. 그러나 당국은 이런 명확한 위험 요인까지 제때 알리지 않았다. 오히려 당국은 지난달 31일 주민들에게 "협약 이행에 문제가 없다"고 거짓말을 했다. 거짓말이 들끓는 데는 채 1주일일이 걸리지 않았다. 게다가 당시 협약서에 서명한 원희룡 지사는 지난달 25일 페이스북에 "제주도의 쓰레기 처리는 전국 최고"라고 자랑했다. 그러나 자랑이 무색하게 주민 불신은 극에 달했고 제주의 차부는 중앙언론까지 타며 전국민에게 인식됐다.

뉴스-in

서귀포시장 "행정시장 한계 자명"

'양성평등' 스크린 광고  
○...제주특별자치도는 9월 20일까지 한달간 도내 영화관에서 '양성평등'을 주제로 한 스크린 광고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21일 공표. 스크린 광고 캠페인은 생활 속 성 역할 고정관념을 깨고 일상에서 양성평등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도민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게 실생활형 영상물로 제작. 이현숙 성평등정책관은 "양성평등"이라는 주제에 대해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고자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제주지역에 양성평등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 조상윤기자

에 비치하고 가정도 감광기를 설치할 경우 비용을 지원해 음식물쓰레기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장담. 이어 "식당은 음식물쓰레기 배출 비용보다 감광기 설치비용이 더 들어 감광기 설치를 꺼리고 있다"면서 "배출수수료를 조정해 감광기를 써도 손해보지 않도록 하겠다"고 점언. 고대로기자

"행정시장 직선제 필요"  
○...양문경 서귀포시장이 21일 행정시장 직선제가 필요하다는 소신을 피력. 양 시장은 이날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서귀포시장만 봐도 임기가 짧게는 1년도 안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정책을 수립해서 예산 반영, 실천으로 옮기기까지 일을 하려면 임기는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 이어 "지역에서 추진되는 국책사업이나 현안도 행정시장에게 결정권이 없다 보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행정시장 직선제로 가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언급. 문미숙기자

음식물쓰레기 절반 감량 약속  
○...고희범 제주시장이 21일 취임 1주년을 맞아 음식물쓰레기를 절반으로 감량하겠다고 약속해 눈길. 고 시장은 이날 시청 기자회견에서 가진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최대 현안으로 쓰레기 문제를 꼽고 "음식물쓰레기 감광기를 모든 식당

**부 고**  
양창남(前 제주대학교 근무) 부인 강태자(루치아·향년 65세)께서 서기 2019년 8월 21일 05시 11분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 일 포: 2019년 8월 22일(목)  
▶ 발인일시: 2019년 8월 23일(금) (장례미사) 오전 10시  
▶ 빈 소: 천주교 동광성당 지하 1층  
▶ 장 차: 애월읍 봉성리 가곡선영

남 편 양창남  
딸 양지연  
지속  
사 위 어영환  
고태훈  
외 손녀 어연재  
연서

※ 연락처: 양창남 010-3699-5320  
고태훈 010-2483-3318

**부 고**  
박형진(前 중등교장) 어머니 남평문씨 희순(향년 96세)께서 서기 2019년 8월 21일 06시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 일 포: 2019년 8월 22일(목)  
▶ 발인일시: 2019년 8월 23일(금) 오전 8시 30분  
▶ 발인장소: 하귀농협장례식장 202호 분향실  
▶ 장 차: 양지공원

남 편 박창호  
아 들 박형진 머느리 고애숙  
지훈 정원희  
재형 강미선  
딸 박정미 사 위 최정주  
영숙 김선봉

※ 연락처: 박형진 010-5059-3671  
박지훈 010-5127-0788  
박재형 010-2695-3622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아버지 진주강공 종표(안투니오·향년 87세) 상사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어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 올립니다.  
2019년 8월 22일

부 인 임 정 희(내과)  
아 들 강 영 제(내과)  
머느리 정 명 희(내과)

**황금향 판매**  
당도 탁월, 산도 적음  
껍질 잘 벗겨짐  
생산지 직거래, 택배비 포함  
5k(25개~35개) 4만원  
10k(50개~70개) 7만원  
문의 **오문식 010-3696-3933**  
(도매도 가능합니다.)

**방수 단열 우레탄 우레아 석주개발**  
☎ 712-3644, 782-3644  
010-4690-3636

**전기차 사고 팝니다.**  
evworld.kr  
전기자동차매매상사  
제주시 일주서로 7714(도두일동)  
**1544-8236**

**벌초**  
전문벌초 대행업체  
직통 T. 010-3692-4898  
사무실 713-4898

**계분 판매합니다.**  
(배달 가능)  
무항생제인증, HACCP인증 받은 자연건조한 계분(산란계)판매  
전 화: 064-796-6947  
핸드폰: 010-3699-3344  
신일농장, 제주팜  
(주소: 제주시 한림읍 명성로106-7)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